

대통령은 5년, '문화 대통령'은 불박이...서태지 데뷔 30주년

'랩 댄스' 기원 연 주인공, 힙합·메탈 록 알린 선구자

국내 팬덤 문화 원형 만든 팬클럽 '서태지 매니아'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마다 뽑지만, '문화 대통령'은 불박이다. 서태지(50·정현철), 만스무살에 데뷔해 한국 대중음악의 지평도를 바꿔버린 선구자.

서태지가 오는 23일 데뷔 30주년을 맞는다. 1992년 3월23일 양현석(52)·이주노(55)와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정규 1집 '난 알아요'로 국내 음악계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지금 K팝으로 통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가 된 '랩 댄스'의 형태를 고착화시킨 주인공이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팬덤 문화의 원형을 만들었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전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있었고, 그 이전에 서태지가 있었다.

서태지도 벌써 반백년을 살았다. 지천명(知天命), 즉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가 됐다. 그럼에도 그와 함께 시대를 보낸 이들의 상당수가 기억하는 서태지는 젊다. 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댄스 랩'의 시작인 기념비적 앨범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은 앨범 제목과 동명인 '난 알아요'였지만, '환상 속의 그대'에 대한 주목도 못지 않았다. 특히 '모든 것이 /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 환상 속엔 아직 그대가 있다 / 지금 자신의 모습은 /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라고 노랫말은 시적이면서도 세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

는 당시를 반영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방송은 1992년 3월 29일 KBS 2TV '젊음의 행진'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중의 반향을 얻기 시작한 건 같은 해 4월11일 MBC TV '특종 TV 연예' 첫 회였다. 당시 신인 무대 코너를 통해 소개됐을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았던 것이 여전히 회자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팀이 소개됐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한다.

1992년 당시 MBC TV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던 예능 '일요일 일요일밤에' PD였던 주철환 작가 겸 노래제작가(前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신드롬이자 문화적 광풍"이었다고 기억했다. "대중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따라하는 현상을 '뉴스테스크'에서 다루고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도 서태지와 아이들을 따라하는 경연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서태지는 '콰이엇 나이트' 발매 전 배우 이지아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배우 이은성과 결혼 등 사생활로 더 화제가 됐다. 이 앨범 발매 기자회견에서 "서태지 시대는 90년대 끝났다" 등 솔직 담백한 답변들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서태지의 음악적 유산은 현재 한국 대중음악계에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서태지의 히트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페스트'(2016)의 김성수 음악감독은 "서태지씨는 한국에서 없거나 실행되지 않던 장르를 대중화시킨 아티스트"라고 봤다. 서태지의 기존 곡을 압도적으로 편곡한 사운드로 주목 받았던 김 감독은 지난 2017년 서태지 25주년 콘서트에서 지휘자로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 록밴드 '시나위'에 몸 담기도 했던 서태지는 대중에게 '변절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장르 변화가 많은 뮤지션이다. 정희석(2002년 별세) 전 연세대 음대학장을 셋째 할아버지로 둔 서태지는 3집에 실린 '영원'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담으면서 클래식 음악적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 한국 대중음악계에 매년 해외의 새로운 음악을 선보여 '대중음악계의 문익점'으로도 통했다.

그럼에도 서태지의 독창성과 개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서태지는 여전히 대중문화계에서 중요한 인물이자 코드로 활용되고 있다. 서태지 마니아(조윤진)가 주요 등장인물로 활약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2013) 등이 예다. 서태지를 경험한 세대가 여전히 문화 영역의 중심에 있는 만큼, 당분간 서태지에 대한 문화적 계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대화 저널리스트는 "최근 10대 인구가 줄고 새로운 것보다 옛날 것을 가지고 오는 흐름이 생기면서 요즘은 10대가 아닌 30~40대가 반응하는 것이 문화계의 트렌드라는 반응도 있다. 서태지가 계속 이슈를 장악할 수 있다"고 봤다.

K팝 아이돌이나 래퍼 그리고 R&B 뮤지션



등 장르 구분 없이 그로부터 음악적인 계승도 여전하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해 마지막 자신들의 레이블즈 콘서트 '2022 위버스 콘 [뉴 에라]'에 서태지 헌정 무대를 꾸렸다.

지난 2017년 서태지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연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게스트로 출연한 점을 떠올리면, 서태지에 대한 하이브의 존경심은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다. 이 콘서트 당시 서태지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라고 말한 일은 여전히 회자된다.

MZ 세대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래퍼 창모는 작년에 '태지'라는 곡을 발매, 그에 대한 존중심을 드러냈다. 최근 가장 부상 중인 R&B 싱어송라이터 드비타는 어린 시절을 보낸 미국에서부터 서태지 8집 '아토모스(Atomos·2009)' 앨범을 많이 듣고 명반으로 여긴다며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서태지와 꼭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했다.

조해림 플로(FLO) 콘텐츠 기획 매니저(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는 "교과서에서나 만

날 수 있는, 지금의 1020에게는 다소 낮은 서태지는 아이유와 방탄소년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1020세대에게 주입함과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인정한 행보를 보여줬다"면서 "서태지는 언제나 문화의 한 가운데에 서있다. 아이유, 방탄소년단, 창모 같은 현재 진행형 후배들을 통해 그리고 스스로의 새로운 음악을 통해 그자리를 계속해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지는 2014년 '콰이엇 나이트' 이후 아직 음반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0년대 말부터 10집 발매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난 25주년 공연무대에서 '우리 30주년에 또 만날까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었다. 그때는 당연히 10집도 나오고 30주년 공연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늦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음반, 공연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서태지 컴퍼니 역시 아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태지가 '30주년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이정재...美인디펜던트 스피릿 시상식 남자연기상



배우 이정재(50)가 미국 인디펜던트 스피릿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남자 연기상을 받았다.

이정재는 6일(현지 시각) 열린 제37회 인디펜던트 스피릿(Independent Spirit) 시상식에서 뉴 스크립티드 시리즈(New Scripted

美대표 저예산 영화·TV 시상식

Series) 부문 남자 연기상 후보에 올라 올리 알렉산더(잇츠 어 신), 마이클 그레이이스(러더포드 폴스), 머리 버틀릿(화이트 루투스), 에일리 토머스(텀:커버넌트)를 제치고 수상에 성공했다.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으로 연기상을 받은 건 지난달 27일 미국배우조합상 TV 부문에서 남자 연기상을 받고 두 번째다.

이정재는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줘서 감사하다"며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준 모든 팬들과 '오징어 게임' 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정재는 이 시상식에 참석

하지 않았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에서 작업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디펜던트 스피릿 시상식은 미국 저예산 영화·TV 시상식이다. 1984년 FINDIE 시상식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으며, 1986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오징어 게임' 제작비는 약 200억원으로 미국 내에선 저예산 작품으로 분류된다.

2020년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국제영화상을 받았고, 지난해엔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의 여우조연상을 차지했다.

우정과 사랑사이 '사운드트랙 #1' 박형식·한소희 메인 예고편·포스터



오는 23일 공개

는 뮤지컬 로맨스 드라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운드트랙 #1' 측은 7일 메인 예고편과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극중 박형식과 한소희의 감정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 집 와서 내 조수 해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20년 지기 절친인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하다. 하지만 어느덧 서로를 쫓는 시선, 작은 스킵에도 떨려오는 마음. 여기에 "우리 우정일까, 사랑일까"라는 카피가 두근거리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사운드트랙 #1' 메인 포스터 속 박형식과 한소희의 그림 같은 케미도 인상적이다.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는 한소희와 그런 한소희를 다정한 눈빛으로 지그시 보는 박형식. 두 사람이 '사운드트랙 #1'에서 보여줄 스킵아홉의 '사랑과 우정 사이' 로맨스가 기다려진다.

'사운드트랙 #1' 메인 예고편과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23일 공개되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운드트랙 #1'(극본 안세복, 연출 김희원)은 20년 지기 친구인 두 남녀가 2주 동안 한 집에 머물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

제작진은 "사랑과 우정 사이를 그리는 만큼 두 주인공의 케미가 중요하다. 박형식과 한소희는 연기 호흡은 물론 비주얼 측면에서도 완벽 그 이상의 케미를 완성했다. 두 배우의 매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주극장, 베니스·아카데미영화제 수상작 잇따라 상영

베니스국제영화제 수상작 '레벤느망'과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가 광주 유일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광주극장은 제78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레벤느망'과 관객상 수상작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가 10일 개봉한다고 7일 밝혔다.

영화 '레벤느망'은 봉준호 감독과 클로이 자오 감독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7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촉망받던 미래를 빼앗긴 대학생 '안'이 시대의 금기로 여겨지던 일을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현대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아니 에르노의 가장 솔직하고 내밀한 고백록을 영화로 만들었다.

영화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난치병으로 시력과 기동성을 잃은 아코가 1000km 떨어진 도시에 사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안전한 집을 벗어나 위험천만한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스크린에 담았다.

제94회 아카데미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펜서'(17일)와 '벨파스트'(24일)도 잇따라 관객을 만난다.

'레벤느망'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스펜서' '벨파스트' '고양이들의 아파트' '어거스트 버진'



전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스펜서'는 할리우드 스타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다이애나 역을 맡아 그만의 캐릭터 해석으로 새로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 세계 영화제에서 27개의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수상했으며 생애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지명됐다.

영화 '벨파스트'는 1960년대 후반, 종교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북아일랜드의 도시 벨파스트에 사는 9살 소년 '버디'와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벨파스트에서 자랐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연출한 영화로 제94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포함 7개 부문 노미네이트, 제46회 토론토영화제 관객상 등 전세계 영화상 38개 부문을 수상했다.

가수 뱀뱀, '사내맞선' OST '멜팅' 가창

내일 발매 예정

그룹 '갯세븐' 출신 솔로 가수 뱀뱀이 드라마 '사내맞선' OST 라인업에 합류했다.

소속사 플렉스엔은 7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뱀뱀이 참여한 SBS 월화드라마 '사내맞선'의 네 번째 OST '멜팅(Melting)'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멜팅'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귀퉁이다. 뱀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설렘 지수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멜팅'은 오는 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